

일주 문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체육대회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10월 26일 서울 진선여고에서 '서울·경인지역 불교청소년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동해사 감로법비 16돌 기념법회
양양 동해사 회주 의문 스님은 10월 29일, 매년 40여 일간 내리는 감로 법비 광명 불축 16주년 기념 경로잔치와 수계산림법회를 연다.



금산사 복지회 후원 바자회
전북사암승가회장 원행 스님은 금산사 복지회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10월 23~25일까지 전주 육성문화센터 3층에서 개최한다.



금강산림대법회 봉행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10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8회에 걸쳐 금강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화엄사 영성문화제 '2008 화엄제'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10월 25일 '고요함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음악'을 주제로 영성음악축제 '화엄제 2008'을 개최한다.



난치병 어린이들이자선음악회
생명나눔 광주전남지역본부장 현지 스님은 10월 22일 5·18기념문화관 민주홀에서 난치병 소아암 어린이들이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병철 학장 AACSB에비인증 획득
동국대 경영대학 이병철 학장은 국내 최초로 경영학교육 최고인증과 미국경영교육인증원(AACSB)의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농촌총각 결혼 앞장 선 공로”

옥천군민대상 혜철 스님 선정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본지 총정지사장·사진)은 10월 15일 제18회 옥천군군민대상 윤리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혜철 스님은 2000년부터 옥천연대 정기법회 및 민간인 성직자 위촉 '충효 사상' 교육 등을 개최하고, 2005년부터 '선남선녀 인연 맺어주기'를 주선해 농촌총각 결혼보내기에 앞장 선 공로로 선정됐다. 개발부문에는 김해자(56·옥천군새마을부녀회장, 정성면 구음리)씨, 문화부문에는 이명식(50·옥천읍 산업담당, 옥천읍 가풍리)씨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8일 제34회 옥천군민체육대회 개최식을 겸해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신도단체 도약 디딤돌 놓는데 최선 다할 것”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4대 회장 취임 김의정씨

“신도회장 취임에 무한한 긍지와 더불어 책임을 느낍니다. 불법 흥포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10월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4대 회장 김의정 회장은 “중앙신도회는 삼보호지와 교단의호를 사명으로 1955년 창립한 이래로 거친 풍상을 이겨내며 정법을 묵묵히 실천해왔다. 7월 12일 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선출된 순간 말할 수 없는 책임과 함께 무한한 긍지를 느꼈다”며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신도단체들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종회회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중 스님, 정태근 국회의원(한나라당), 김충용 총로구청장, 백도웅 목사(한국국교인평화회의 명예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김의정 회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에서 교단을 외호하는데 출가와 재가의 합심과 화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50여년 숙원이던 신도회관 건립으로 소통과 결집이 더욱 용이하게 됐다”며 “이를 종자(種子)로 삼아 불교와 사회 발전에 신도들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용맹정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의정 회장은 ▲인재양성 ▲사회기반확대 ▲국제사회 참여를 통한 불교의 세계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불교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며 “자립기반을 갖춘 인프라와 세계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미래지향적 경영전략을 통한 비영리 단체의 선진화 등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김의정 회장은 여성으로서 최초로 제23대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에 당선됐고, 중앙신도회 산하 신도단체 설립 및 중앙신도회관 건립 등 불교발전에 많은 공로를 세웠다. 김의정 회장의 어머니는 조선 마지막 상궁 2명에게서 전수받은 궁중 다례(茶禮)와 초의 선사로부터 이어져 온 다도를 섭렵해 ‘명원 다례법’으로 정리한 명원 김미희(茗園 金美熙·1920~1981)여사, 아버지는 상용그룹 창업자인 성곡 김성근(省谷 金成



坤·1913~1975) 회장이다. 현재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로 한국 차문화회를 복원·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전통 위에 세련미 가미”

불미전 조각 이재운·회화 이수정 수상

“현대적인 불교미술을 재조명하고 연구·발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제23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운영위원장 지관) 시상식이 10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거행됐다. 조각부문 이재운(사진 왼쪽) 작의 ‘석가모니불’과 회화부문 이수정(사진 오른쪽) 작의 ‘김(劬)’이 공동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 전시는 10월 15~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이재운 작가는 “기존 불상의 옷 주름에 주목했다. 근대 이후 굵긴 불교 조각의 이력을 보존하고 계승된 조각 기법을 따르되 이 시대에 맞는 세련미를 찾기 위해 고심했다. 인체 골격과 불신의 골격을 비교해 안정된 상조를 조성하고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온화한 미소를 전할 수 있는 완만함을 찾고자 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가연숙 기자



“희망으로 전법 매진할 터”

개교 20주년 전북불교대학 한광수 학장

“불교의 더 넓은 저변확대와 더 큰 인재발사도량으로 거듭나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불교대학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중생을 부처로 세상을 정토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988년 개교한 전북불교대학 한광수 학장(사진)의 조용하고 힘 있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친다. 한 학장은 개교20주년 기념사업으로 올 한해 매월 마지막 주마다 선지식 초청법회를 개최중이다. 이미 해거스님(금강선원장) 등 선지식을 모셨고, 10월 26일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초청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12월에는 양코르와트 성지순례와 전 동문이 동참하는 ‘전북불교대학인의 밤’을 개최한다. 전북불교대학 발전 역사를 담은 활동사진전 개최와 <개교20주년 기념책자> 발간 계



획도 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한 사이버 포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광수 학장은 현재 전북 불교대학이 위치한 완산불교회관의 각 120평에 이르는 2층과 3층을 선방으로 개편하고, 신행공간으로 활용해 누구나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광수 총장은 “최근 강건기전 회장 정년퇴임으로 인한 공백과 신입생 감소, 외부강사 섭외 고충 등 문제가 있었지만 학내 실행단체들과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며, “희망을 갖고 교육과 전법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국사 '제36회 신라불교문화영산대제'



불국사(주지 성태)는 10월 11일 경주 불국사 범영루 앞 광장에서 '제36회 신라불교문화영산대제'를 개최했다. 영산대제에는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백상승주지상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제15회 백제 고산대제·삼천범종 타종식



운주산 고산사(주지 법산)는 10월 11일 백제고국영령을 추모하는 제15회 백제고산대제에 맞춰 삼천범종 타종식을 거행했다. 타종식에는 최경식 대령(7사단 육전연대 연대장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해철 충청지사장

옥천경찰서 경불회 사찰순례



옥천경찰서 경불회(회장 전동호)는 10월 12일 천태종 총본사 구인사로 2008년 하반기 사찰순례를 거행했다. 지도법사 경승 지원 스님(대림선원 주지)과 법성 스님을 비롯한 경불회원 40여명이 동참했다. 해철 충청지사장

성주불심회 2대 회장 이·취임식



경북 성주불심회(회장 이기봉)는 10월 10일 경북성주 웨딩홀에서 2대 이기봉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성주군 사원연합회 회장 법원 스님을 비롯한 스님 20여명과 관신도 150명이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한국불교정토종 10월 9일 수계식 봉행



한국불교정토종(종정 지산)은 10월 9일 인천 덕흥사에서 승가교시 합격자 20명, 전법사교시 합격자 10명에게 품수·계를 내렸다. 이날 수계식에는 종정 지산 스님, 종회의장 무각 스님을 비롯한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국의 민중의술계에서 신화 같은 기적을 일으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스님은 누구인가?

칠대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 이겨 13세부터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8세가 된 이 시간 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떠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정신수련 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선도 불로장생하는 하늘에 의술이며 서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어떻게 하나 1.2.3권 저자 전 울산 지방법원 황국부 부장판사가 현직에 있으면서 민중의술신론 2006년 12월 7일 10면과 11면, 2007년 1월 31일자 8면과 9면에 민중의술 명의열전 “김영생과 천의선도” 천의선도는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다 라는 제목으로 안내되었던 천의선도 창도자 김영생 대한신불교천우종 포교원장 삼봉(三奉)승이 대덕고승님 앞에 감히 권유의 말씀 올립니다.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달래주고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며 부처님 뜻으로 인류평화에 기여하자고 말합니다. 천의선도는 전수받은 순간부터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를 축감으로 느껴볼 수 있으며 시험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0년 두통 환자가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려 나갑니다. 당신의 머리 백회를 통하여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가슴에 시들던 초목이 이슬비 맞으면 싱싱해 지듯이 모든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천의선도 수련을 몇 시간 계속하면 당신의 손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자석의 당기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손이 오르라 들면서 이 신비속에 접어들지 않

마간이 지나면 감기를 들었을 때 콧물이 주르륵 흐르는 느낌이 들고 나면 수련자는 무아상태에 들어갑니다. 앞이나 안쪽에서 물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삼매경에 들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30여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차는데 삼키면 또 차고 삼키면 또 차는데 천상영계에 선 이 침을 생명의 감로수라 하고 현대의학으로 보면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이 분비되지 얼마간이 지나면 회의의 환희속에 접어들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건지 나의 의무와 사명감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간혹에서 다이폴린이 분비됩니다. 엔돌핀은 물핀의 200배 진통치유능력이 있고 다이폴린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치유능력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모든 병의 원소가 소멸되고 병든세포가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이 영계의 메시지인데 천의선도를 17년간 전수시키다 보니 날으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손발이 뒤틀린 20대 여성이 수련 2년만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뇌종양환자 간암환자 식도암환자 폐암환자 재생능성 빈혈환자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10여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증풍으로 5년간 누워 계시던 한의학 박사님이 수련 5개월만에 정상으로 회복되어 의료업에 종사하고 30년 두통환자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견비통 위하수 이명증 생리통 요실금 전간(간질병) 전립선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수련시키면서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2.3차 주입시켜 주었더니 신화같은 기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 체험을 해 봤는데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대덕고승님 제 나이가 78세입니다. 이 신비한 대체의학의 사정시

킬 수가 없어 내 의식이 생활할 때 천하제일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전 인류에 봉사하며 살자고 이 글을 올립니다. 이 치료법은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하늘의 의술입니다. 일반인에게 공개하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염려도 없지 않나 스님들에게만 안내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노승을 시험해 보시고 믿어지거든 고정관념 훑힐 털어버리고 종파를 초월해서 노승을 찾아 주시면 천의선도 전수식부터 조상천도식 기적의치료법 선단제조법까지 3박4일이면 천하제일의 명의로 환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성 소양증과 탈모도 방지되는 비누도 개발되어 시험을 끝마쳤습니다.

- 수련장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천의선도 전수도장
■ 연락처 : 010-4933-4528
· 1차 : 11월 13일 오후 1시 개강 - 16일 12시 수료식
· 2차 : 한국 땅에서 마지막 강의 - 11월 20일 1시 개강 11월 23일 12시 수료식
· 전수비 + 환신비 + 교재비 : 150만원
· 내선침 값 500개 : 50만원
■ 저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00년 사상의학 팔상체질 분류비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서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가 · 세계침구사학회연합회 대한침구사 협회 회원 · 대한신불교 천우종 포교원장 삼봉 김영생 법하